

된다. 각국의 수량성 차이는 뚜렷이 합성품종 및 교잡종 품종 육성국으로 차이가 나며 개발 도상국가의 소농경작 상태하에서는 합성 품종 보급, 농가에서 자가 채종해서 종자로 이용하는데는 유전인자들의 상실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최근의 인식이다.

한편 육수수 교잡종 육성방법 역시 1930년도 이후 상당한 변이를 가져와 최근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심고 있는 교잡종은 복교 잡종이 아니고 경제적으로 종자생산이 가능한 단교잡 혹은 개량단 교잡이 주로 재배되고 있다.

14. 벼 育成 新品種 密陽 21, 23 号의 栽培法에 対한 綜合考察

(영남작물시험장) 박래경, 허훈, 강양순*, 손양

- 1) 이앙기와 수량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역별 최고수량을 올릴 수 있는 시기를 보면 밀양 21호는 남부평야에서 6월 5일 중부 평야에서 6월 1일 남부산간에서 5월 27일 중부산간에서 5월 20일 이었고 밀양 23호는 중부평야에서 5월 24일 남부평야에서 5월 30일 이었다.
- 2) 최대 수량을 낼수있는 시비량은 밀양 21호에 있어서는 20 kg (10a당) 수준이었고 밀양 23호는 25 kg 수준이었으나 적정 시비량은 양품종 공히 15 kg 수준이었다.
- 3) 밀양 21호는 시비비율 및 시비시기 간에는 수량차이를 인정할 수 없었으나 밀양 23호는 기비중 점시비에서 증수 경향이었다.

- 4) 밀양 21호나 밀양 23호가 증수하였는데 특히 밀양 21호는 주당
본수를 늘리는 것이 밀양 23호는 이앙주수를 늘리는 것이 유
리하다.
- 5) 밀양 23호는 높은 휴면성과 발아에 비교적 고온을 필요로 하
며 실용적 발아 촉진 방법은 $20^{\circ}\text{C} \sim 30^{\circ}\text{C}$ 수온에서 3일 이상
침종 후 30°C 에서 2일 이상 쇠아시키는 것이 단시일내에 발아
율을 높이는데 가장 효과적이었다.